

R-4. 농축 혈장을 이용한 골 이식술과 Calcium sulfate 차폐재료를 이용한 조직유도 재생술이 골연하낭의 치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

김경수*, 정진형, 임성빈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목적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치주조직의 재생은 골의 재생 속도와 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연조직의 치유에 더 빠르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임상적으로 혈소판 농축 혈장과 유사한 편리성을 가진 조직 유도 재생술 재료인 Calcium sulfate barrier는 오랜기간 정형외과나 치과에서 사용된 재료로 예측가능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골연하낭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는 술식인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골이식술이 흡수성 차폐재료인 Calcium sulfate barrier를 이용한 조직유도 재생술에 비해 어떤 임상적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6mm이상의 치주낭과 2벽성 혹은 3벽성 골 연하낭을 가지는 치아 28부위를 대상으로 하였다.

술 전 치석 제거술과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합 조정을 시행하였다. 구강위생교육을 수차례 반복 시행하였으며 치태지수의 개선이 없는 환자는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통법의 조직유도재생술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막을 형성하고 tetracycline으로 치근면 처치를 한 후 CS군에는 이종골과 Calcium sulfate를 혼합이식한 후 Calcium sulfate barrier를 덮어 주었고, PRP군에는 이종골과 PRP를 혼합이식한 후 봉합하였다.

측정은 술전, 술후 3개월, 술후 6개월에 probe를 이용해 치주낭 깊이, 치은 퇴축, 임상적 부착 수준, 그리고 국소마취하에 최대 탐침 부착 수준을 측정하였다.

결론

1. PRP군과 CS군 간의 치주낭 깊이, 치은 부착양, 치은퇴축, 그리고 최대 탐침 부착 수준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술전과 비교해 PRP군과 CS군의 술후 3개월과 6개월 모두에서 치주낭 깊이, 치은 부착양, 최대 탐침 부착 수준의 감소가 있었고 치은 퇴축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3. PRP군과 CS군 간의 치주낭 깊이, 치은 부착양, 최대 탐침 부착 수준의 평균값 비교시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더 낮은 향상을 보였지만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4. PRP군과 CS군간의 치은 퇴축 양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더 적은 퇴축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골연하낭 치료를 위한 PRP를 이용한 골 이식술과 Calcium sulfate barrier를 이용한 조직재생술은 유사한 임상지수의 향상을 보여주었다.